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4월 3일(금)
--(윤력 2월 16일)--
Пятница
3 апреля 2026 г.
№ 13 (1218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정교회 신자들이 오는 4월 5일 성지주일(종려주일)을 맞는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로, 부활절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러시아에서는 종려나무 가지 대신 버드나무 가지를 성당에 가져와 축복을 받는 전통이 있다.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사할린주, 사회적 기업 지원 지속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비즈니스 여성' 전러시아협회 사할린 지부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장애아 재활 및 보충 센터 대표는 "사할린은 타 지역보다 지원이 앞서 있다"며 정책 유지를 요청했고, 주지사는 "보조금과 장려 프로그램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공예인들은 '사할린 엑스포' 전시관을 통해 제품을 무료로 홍보할 기회를 얻는다. 우수 제품은 주정부 지원으로 러시아 전역과 해외 전시회에도 소개될 예정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4월 3일 '깨끗한 금요일' 대청소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4월 3일 첫 대규모 봄맞이 환경 정화 '깨끗한 금요일'이 열린다. 시행정부는 시민과 직장인,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청소 참가자에게는 쓰레기봉투와 장갑, 작업 도구가 무료로 제공된다. 4월 10일과 25일에는 전역 '토요 대청소'가, 17일과 24일에는 '깨끗한 금요일'이 추가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 수거된 쓰레기는 시 매립지에서 무료로 받는다.

사할린주,

출산 장려 위한 보조생식기술 국고 지원 확대

사할린주 정부는 출산 여건 개선과 가족 가치 강화를 위해 보조생식기술(IVF)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발의한 국가 프로젝트 '가족'의 일환인 지역 프로그램 '행복한 모성'에 따라 자녀를 희망하는 부부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강화되고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2025년부터 주 예산으로 체외수정 기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범위에는 호르몬 자극과 초음파 진단은 물론 기증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첨단 보조생식 기술까지 포함된다.

2026년 현재 46명의 여성이 총 730만 루블리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 3월

부터는 국가가 보상하는 의료 항목이 추가로 확대되어 시술 성공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원은 사할린주에 1년 이상 거주 및 재직 중인 러시아 국적 여성이나 실업 상태가 6개월 미만인 여성, 육아휴직자 또는 장애 아동 및 고령 친족을 돌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친권을 박탈당했거나 위키 가정으로 등록된 경우, 또는 양육비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사할린 지역의 인구 문제를 개선하고 가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지사, '사할린테크' 캠퍼스 건설 현장 점검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건설 중인 '사할린테크' 캠퍼스 내 교육연구센터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 첨단 교육연구센터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청년과 어린이'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 중이다.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 구축 사업의 최종 단계인 본 시설은 2027년 완공 및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현장에는 교육연구센터 2개 동의 골조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내부 엔지니어링 설비 구축과 외벽 단열 및 유리창 설치 등 외부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니콜라이 다위도브 사할린주 건설부 장관은 "공기 단축을 위해 2개 동의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대학 측에 공사 완료 전이라도 새로운 공간에서 연구 및 산업 파트너들

과 협업할 수 있는 운영 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주지사는 "모든 연구 역량이 이곳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 단지는 지역 전체의 과학과 교육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500명 수용 규모의 현대식 학생기숙마을은 이미 2025년에 완공되어 운영 중이다. 알렉세이 오그네브 사할린국립대 총장 직무대행은 "기숙사 완공으로 학생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신입생 모집 규모를 25% 확대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 내에는 12개의 실험실과 인공지능(AI) 센터가 운영 중이며, 가스프롬은행 및 '사할린 에너지'회사 등 산업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석유·가스 분야의 특화된 교육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디지털 등대' 국제 포럼을 통해 도시계획 학과 설립을 위한 협약도 체결되었다.

2025년도 사할린주 예산 집행안, 주민 의견 수렴 실시

사할린주 정부는 2025년도 지역 예산 집행에 대한 주민 의견을 4월 2일부터 6일까지 수렴한다. 해당 법안은 '2025년도 사할린주 예산 집행에 관한 법률'이며, 이에 대한 공공토론은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다.

의견 제출은 주지사 및 정부 공식 홈페이지 내 '시민 접수처'에서 '공공토론 참여'를 명시해 전자 방식으로 하거나, 유즈노사할린스크 소재 청사(콤무니스티체스키 프로스펙트 39B, 101호)를 방문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본 결산 법안 검토에는 사할린주 주민을 비

롯해 시민단체, 언론계 대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5년도 사할린주 예산 집행 법률안과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시민을 위한 예산' 안내서, 공공토론 권고안 초안 등 관련 자료는 사할린주 '열린 예산'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과 질문에 대한 검토 결과가 담긴 공공토론 의사록 역시 4월 20일까지 해당 포털에 게시될 예정이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 민원에 대한 답변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송된다.

사할린주, 첨단 의수족 생산 시설 본격 운영

사할린 및 쿠릴 열도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의수족 제작과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모스크바 의족·정형외과 사업장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해당 시설은 개별 맞춤형 최신 의수족 제작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일상생활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활 적응 훈련까지 제공한다.

현장을 방문한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연방 노동사회보장부와 협력해 설립된 이곳은 특수군사작전 참전 용사와 지역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라며, "현재 시설의 생산 능력을 통해 사할린과 쿠릴 내 모든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시설은 재활 센터 내에 위치해 있어 의족 착용 후 즉시 전문적인 재활 치료로 연계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까지 가능하도록 돕는 고성능 의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하지 의족을 제작 중이며, 내년부터는 상지 의수 제작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 내 의수족이 필요한 환자는 약 450명으로 파악되며, 이들은 개인 재활 프로그램에 따라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빠는 매일 한국 라디오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사할린에서 온 편지: 잊혀진 조상들의 목소리' 프로젝트, 고 박흥운 씨의 가족과의 만남

2025년 8월에 새고려신문사는 '사할린에서 온 편지: 조상들의 잊혀진 목소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본 프로젝트는 새고려신문 편집부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1977년 대한민국에서 장민구 기자가 출간한 『사할린에서 온 편지』의 일부를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게재한 것이다. (프로젝트는 본지 2025년 8월 1일호 소개 - 기자주.)

연말에 한 전화가 걸려왔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린 한 편지를 흡스크에 거주하신 한 어르신이 러시아어로 번역된 남편의 편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그의 손녀가 전했다. 박흥운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돌아가셨다.

여러 사정으로 지난 주말에야 흡스크를 찾을 수 있었다. 흡스크에는 필자가 '사할린에서 온 편지' 프로젝트의 공동 주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부회장 박 웨니아민 시의회의원과 함께 갔다. 고(故) 박흥운 씨의 부인 이정자 씨는 울리야 손녀와 우리를 기다렸다.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막내 딸 따마라도 찾아왔다.

항상 새고려신문을 구독하는 이정자 씨는 신문에 실린 남편의 편지를 첫 줄부터 읽어보고 "왜 시동생 이름이 나왔지?" 하면서 남편의 이름을 발견했다...

박흥운·이정자 부부의 운명과 가족사는 정말 특별한 사연이 많았다.

이정자 어르신은 서류상으로는 1944년생이지만 사실은 1941년생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32세가 되었을 때 친언니에게서 알게 되었다. 3살에 입양된 그는 친부모와 자매에 대한 사실도 몰랐다. 알고 보니 양부모가 자녀들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할린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머물렀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산속에 가기도 했다. 한때는 별목장에서 산 적도 있었다. 학교가 없는 한 마을에서 지냈을 때는 조선학교 3학년도를 마친 이정자 씨가 2년 동안 아예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포로 나이스크로 이사했을 때 4학년을 마칠 무렵, 가



족이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가야 했는데, 당시 포로나이스크 조선학교 교장선생님이 "2년이나 휴학했고 4학년도 끝까지 마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기숙사에서 지내게 하여 4학년 졸업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다른 곳에서는 러시아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수학 외에는 '2점'뿐이었다. 러시아말을 제대로 못하고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2년 동안 같은 학년을 반복했다.

이미 큰 처녀가 되어 7년제를 졸업하고 중신으로 시집갔다.

양어머니는 이정자 씨 외에 나중에 어린 아들도 입양했다. 큰 사람을 그들에게 주지 못했지만 잘 입히고 잘 먹여주었다고 한다. 먹는 데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정자 씨의 딸 따마라가 덧붙였다. 그리고 입양된 동생은 피가 다르지만 아주 가까운 친형제처럼 지낸다.

자녀 넷(아들 하나, 딸 셋)을 둔 엄마가 되어 친언니를 만나게 되었고, 친가족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아버지는 탄광부였고 탄광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망했다. 죽기 전에 딸 셋의 아버지는 아이들을 잘사는 집에 넘겨달라고 부탁했다. 가족은 흡스크에 살고 있었다. 알고 보니 이정자 씨의 어머니는 말을 못 하는 일본 여성이었다. 이정자 씨는 막내딸이었다. 나중에 어머니는 큰딸을 데리고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 끝까지 막내를 데려가려고 했다고 전해졌다.

이정자 씨의 남편 박흥운 씨는 1928년생

이었고, 사할린에 강제징용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9세에 어머니를 여의었고, 아들 넷을 둔 아버지는 재혼했다. 새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던 박흥운 씨는 16세에 집을 떠나 사할린에 있는 삼촌을 찾기로 했다. 고생 끝에 사할린에 도착했지만, 가족을 이룬 삼촌에게는 사실 많이 의지하지 못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발을 배우게 되었고, 이 기술이 그의 평생 직업이 되었다.

잘생긴 박흥운 씨는 일하는 곳마다 성실하고 수준 높은 이발사로 인정받았다. 이발사 기술 경연 대회에서 우수한 적도 있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가족의 말에는 따뜻함이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아빠는 잘생기셨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시정에 가서 지금 사는 이 아파트도 아버지 덕분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번도 엄마에게 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어요. 착하고 우리를 매우 사랑했고, 아이들 앞에서 절대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또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빠가 뭐가 말하면 다들 그의 말을 잘 따랐어요."라고 따마라가 말하였다.

'이발을 배워라, 이 직업은 너에게 필요하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녀도 역시 미용실에서 평생 일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위기의 1990년대에는 바로 이 직업이 가족을 먹여 살렸다.

아버지는 고향을 많이 그리워했다. 항상 조

선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아이들에게도 이 말을 자주 했다. 매일 한국 라디오 방송을 듣고 가족 소식을 기다렸다.

그는 32세에 늦게 결혼했다. 고향에서 결혼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소련 국적을 일찍 취득한 이유도 귀환 때문이었다. 소련 국적을 가진 사람이 더 빨리 귀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고향에 가고 싶어했던 그는 큰아들들에게 모국어 가르치기도 했다. 이는 막내가 말했다. 자기는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 떠오르기도 한다고 한다.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교육 때문인 것 같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단어는 좀 안다고 한다.

아버지는 1989년에 61세의 나이로 심장병으로 돌아갔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가족에게서 편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 그쪽에서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편지가 도착하지 않았다.

KBS 라디오 방송에 나간 아버지와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재방송할 때 녹음하여 거의 매일 틀어놓았다.

그 아픔은 모든 1세 사할린 한인들의 아픔과 같다.

자녀와 손자녀를 무척 사랑한 박흥운 씨는 다행히 자녀의 사망 소식을 듣지 못했다. 코로나19와 그 후유증으로 이정자 씨는 아들과 딸들을 2020년, 2021년, 2022년에 잃었다. 이는 가족에게 치유되지 않은 상처이자 큰 비극이다.

이 이야기를 전한 딸 따마라도 역시 겨우겨우 이 고비를 넘겼다. 코로나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날 이정자 어르신과 딸, 손녀와 나는 이야기는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하였다.

* 박흥운 씨의 동생에게 보낸 편지는 3면에 게재한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 여성 선수들, 중국 국제 치어 스포츠 대회서 금메달 획득

사할린주 선수들이 중국 하이룽장성에서 열린 국제 치어리딩 대회에서 중국 선수들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하며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 같은 소식은 사할린주 스포츠부 홍보실을 통해 전해졌다.

이번 대회는 러시아와 중국 간 협력의 일환으로 하얼빈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블라디보스토크, 블라고웨스츠크, 치타, 하바롭스크, 우수리이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등 여러 도시의 팀들과 중국 선수들이 참가했다.

사할린주 대표로는 아리나 라푸쉬코 선수와 아리나 코왈렌코 선수가 출전했다. 두 선수는 '치어 힙합 2인조' 종목 일반부에 나서 자신감 넘치는 연기를 선보였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중국 경쟁팀을 3점 차로 따돌리며 실력을 입증했다.

Сахалинки взяли золот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урнира по чир спорту в Китае

Сахалинские спортсменки ярко заявили о себе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 на турнире по чир спорту в китайской провинции Хэйлунцзян они завоевали золотые медали, обойдя соперников из КНР.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шли в Харбине в рамк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На площадке со-

брались команды из разных городов: Владивостока, Благовещенска, Читы, Хабаровска, Уссурийск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также спортсмены из Китая.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редставили Арина Лапушко и Арина Коваленко. Девушки выступали в дисциплине «чир хип-хоп двойка» в категории «мужчины и женщины» и показали уверен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которое принесло им победу. В итоге они опередили ближайших соперников из Китая на три балла.

사할린주, 2025년에 위탁 양육 190가구 일시금 받아

2025년 초부터 러시아 사회보험기금 사할린주 지부가 아동 위탁 양육하는 190가구에 일시금을 지급했다. 이 수당은 입양 부모, 후견인, 위탁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며, 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수당은 러시아 연방 영토에 영주하는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지원 금액은 2만 8,450.45루블이며, 장애 아동이나 7세 이상 아동, 또는 형제자매를 입양할 경우에는 아동 1인당 21만 7,384.58루블리가 지급된다. 해당 수당에는 지역 계수가 적용된다.

나제즈다 시니치나 사할린주 사회보험기금 지부장은 "수당을 신청하려면 입양 판결 효력 발생일, 후견 결정일 또는 가정 위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당을 받으려면 사할린주 사회보험기금 지부 사무소나 정부서비스 포털, 다기능센터, 또는 우편(공증된 판결문 사본 첨부)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양에 관한 판결문 사본만 제출하면, 나머지 서류는 기금 측이 직접 요청한다.

수당 지급 여부는 신청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결정되며, 추가 서류나 정보가 필요할 경우 심사 기간은 20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190 приемных семей получили единовременное пособие в 2025 году

С начала 2025 года отделение Социального фонда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значило единовременную выплату 190 семьям, которые приняли детей на воспитание. Эта выплата предназначена для усыновителей, опекунов, попечителей и приемных родителей и помогает им материально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воспитания ребенка.

Право на выплату имеют гражда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ющие на ее территории. С 1 февраля 2026 года размер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составляет 28 450,45 руб., а при усыновлении ребенка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ребенка старше 7 лет или братьев/сестер — 217 384,58 руб. на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Пособие выплачивается с районным коэффициентом.

«Заявление на выплату необходимо подать в течение 6 месяцев со дня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у решения суда об усыновлении, вынесения решения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опеки или попечительства, либо со дня заключения договора о принятии ребенка в семью», — отметила управляющий отделением СФР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дежда Синицына.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выплату, нужно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в клиентской службе отделения СФР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 МФЦ или направить почтой (с нотариально заверенной копией решения суда). Достаточ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копию решения суда об усыновлении — оста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специалисты отделения СФР запрося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8면에 계속)

사할린에서 온 편지

동생 박홍관 받아 보아라

싸할린주 흠쓰크 시 달리나야 2번지에서 형 박홍운이가 답장을 보낸다. 4월 3일 방송 전파로 흥관 동생의 목소리와 인자하신 제수님의 음성도 육성으로 들을 때에 라디오 앞에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 앉아 눈물을 흘리며 10분 동안을 들을 때에 부모 형제들과 친척들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 어디에다가 비할 수 없구나. 방송에 의하면 이 형을 불러낸다는 초청장을 대구 축진회까지 가서 수속절차를 받아 해보내겠다고 하니 그 초청장을 받는 즉시로 이곳 행정기관에 출국 신청을 접수시키겠으니 늦어도 금년 안으로 우리 형제들이 20년 그림그리든 상봉이 실현되리라고 생각한다.

너의 편지에 의하면 그동안 제수씨께서 대수술을 두번씩이나 하였다니 얼마나 근심스러웠겠는가. 다행으로 지금 와서는 건강한 몸으로 지낸다 하니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요사이 새봄을 맞이하여 몸들이 무고하며, 제수씨도 안병하시고 경록이도 학교에 잘 다니는지 알고 싶다.

이곳 형은 두 내외가 매일 직장으로 출근했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라디오 앞에 앉아 전파로 흘러나온 고국에 방송을 듣는 것으로 일과를 삼는다. 아이들 4남매도 모두 다 학교에 잘 다니고 있으며 아이들 손으로 고국 삼촌에게 편지 써보라고 하였으나 이곳 학생 아이들은 쓰련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한글을 쓸줄 몰라 못쓰겠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말도 잘 못한다. 이 점을 우리 부모들은 참으로 뼈아프게 생각한다.

너의 편지에 의하면 날씨가 온화해지면 고향 아버님을 모셔와서 같이 방송을 하겠다고 하였으니 고대한다.

아버님 방송시에 이곳 싸할린에 있는 사촌동생 4남매가 있는데 너의 방송할 때나 또 편지에도 그 사람들의 말은 일절 없었으니 섭섭히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보기에 미안함을 금할 수 없으니, 다음 편지나

방송할 때에는 그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것이 좋은 듯하다. 단 한마디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섭섭히 않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다음은 나의 가정사를 언급코자 한다. 나는 장가를 늦게 갔다. 그 이유는 해방후 돌아가는 말이 금년에는 고국으로 간다느니, 명년이면 위문없이 고국을 간다고들 하는 바람에 기왕이면 고국을 나가서 부모님 앞에서 장가를 들겠다고 생각하다가 나니 물같이 흐르는 세월이 10여년을 지나가고 나니 아하, 이러다가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33살에 장가를 들다 보니 아이들도 모두 어린아이들이다. 너의 형수는 올해 30세이다. 그래서 지금은 1남 3녀를 두고 있다. 쓰련 학교 제도는 10학년까지 의무교육이고, 10학년 이상은 대학인데 시험을 치러서 입학하게 된다. 이곳 싸할린에 지금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국적이 여러가지로 되어 있다. 쓰련국적, 비국적, 소위 북괴국적이 있는데 해방후 북괴에서 소위, 파견노무자로 들어온 사람들만 제외하고는 고국으로부터 유가족들의 초청장만 있으면 출국 신청은 대대적으로 받아 준다. 초청장은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모습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쓰련 행정기관에서 출국신청서를 받는다는 16세 이상, 성년자에 대해 쓰련돈 300루블을 지불해야 하는데 사진 4장(4×5)가 들고, 신청할 때 30루블 즉, 1루블을 지불하고 나머지 270루블은 출국 허가장을 받을 때에 지불하라고 한다. 이러한 형편을 알지 못하고 고향의 유가족들은 하루속히 나오지 않는 것을 원망하는듯 하니 싸할린의 친척을 둔 유가족들에게 초청장을 해 보내주라고 알려주길 바란다. 싸할린 우리 동포들은 지금 한창 마음이 부끄러지고 있다. 오늘은 간단히 이만 주리노니 만날 때까지 무사하길 하느님께 빌고 또 빌 뿐이다.

1976년 4월 8일
싸할린주 흠쓰크시
형 박홍운 씀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 아파나시

| | | | |
|------|--------|-------|------------|
| 관리번호 | 951344 | | |
| 성명 | 김 아파나시 | 한자 | |
| 이명 | 없음 | 성별 | 남 |
| 생년월일 | (1900) | 사망년월일 | 1938-05-25 |
| 본적 | 미상 | | |

공훈록

러시아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항일투쟁에 참여하였다. 김아파나시는 1917년 노령 니콜리스크에서 한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청년단체를 조직하여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였고, 1918년 6월 한인청년학생 전시베리아대회에서 중앙위원회 비서로 활동하였다. 1919년 3월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니콜리스크 한인 청년단체를 대표하여 블라디보스톡에서 현지의 청년지도자와 연대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러시아어로 된 항일 신문 <학생과 목소리>를 발간하여 일제의 침략상을 선전하였다. 또한 김아파나시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만세시위에 참가하였으며, 오성묵(吳成默)과 함께 국내에서 일제 경찰이 3.1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에 대한 '항의문'을 일본영사에게 전달하였다. 1922년 이후 김아파나시는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중심인물로 한국의 독립문제와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인의 자치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1935년 소련공산당 숙청 당시 '반혁명당의 지시에 따라 일본 첩보기관을 위한 간첩활동

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되어, 1938년 5월 25일 일본의 밀정이라는 죄목으로 총살당했으나 1957년 11월 19일 복권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新韓村 高麗共產青年會 회의 기타에 관한 건(機密 第276號, 1923. 11. 1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鮮人과 過激派(5)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5, 38(국사편찬위원회) 러시아편 ii
-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강만길·성대경, 1996) 89면
- 한국독립운동에 관한 건(機密 第30號, 1919. 2. 26)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7)
- 러시아측의 日露문제에 관한 공산당 및 선인공산당 취체에 관한 건(機密 第180號, 1923. 7. 1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14)
- 露字 신문 기사에 관한 건(機密 第1184號, 1926. 4. 8)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16)
- 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 사회주의자들(마뜨베이 씨도피예비치 김, 1990) 140~142면
- 재소한인의 항일투쟁과 수난사(김 블라지미르, 1997) 170~177면
- 鮮人の 조선독립운동에 관한 건(機密 第30號, 1919. 3. 1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7)
- 묘소
-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관련문의

(편집 이철수)

화태, 가라후토, 사할린

김이정

(전호의 계속)

말을 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이를 후 석구는 칼을 찬 순사를 따라 집을 나섰다. 이준구, 그의 형 이름으로 석구는 화태로 떠났다.

석구의 편지는 일 년이 지나서야 왔다. 떠나기 전날, 석구는 가는대로 바로 편지 한다 했기에 나는 매일 우편배달부를 기다렸다. “화태서 편지가 두 개나 왔데이.”

우편배달부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건네주면서 일부러 준구네 집에 온 편지를 아버지에게 일러바쳤다. 편지봉투엔 보내는 사람이 이준구의 이름으로 돼 있었다. 나는 편지를 들고 뒷동산 당산나무 아래로 가서 혼자 읽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가족들이 식사를 마치자 선언을 했다.

“화태로 가야겠너더.”

나는 결연다.

“무슨 소리고? 도대체 거가 어디라고 지지바가 혼자 간다는 거로!” 아버지는 대뜸 소리를 질렀다. 좀처럼 화를 내는 적이 없는 아버지는 화롯불이라도 삼킨 표정이었다. 화태라고, 소문만 흉흉했지 그곳이 어디쯤에 있는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곳에 열다섯 살 딸이 혼자 간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긴 했다. 지난 달에도 양지마을에서 아들이 돌아나 있는 김 씨가 밭에서 일을 하다 그 길로 끌려가 동네가 발각 뒤집혔다. 초기엔 구장이 딸이라도 하고 데려가던 징용을 이젠 죄인 끌고 가듯 했다. 가족들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그 길로 잡혀간 김 씨의 노모는 실성한 사람처럼 동네를 헤매고 다닌다고 했다. 너나 할 것 없이 바깥출입을 삼갔다.

아버지는 행여 순사 눈에 띄까봐 웬만해선 집 밖으로도 나가지 않았고 일이 있어도 어두워지기 시작해야 겨우 움직였다. 아랫마을 청년이 징병으로 끌려가기 전 천 명의 사람들에게 바늘땀을 얻으면 살아 올 수 있다며 그의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은 물론 읍내의 학교를 남김없이 돌며 바늘땀 천 개를 채워 품에 지니고 갔다. 그 바늘땀이 총알을 막아줄 거라고 그의 어머니는 굳게 믿으며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아들을 보냈으며 어른들은 혀를 내둘렀다. 시절이 흥흥했다. “난 석구말곤 아무한테도 안 갈끼라예. 죽어도 안 가예.”

열한 살 그 봄 이후 나는 석구 이외의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가 떠나기 전날 잡았던 손의 감촉이 여전히 내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그의 손에서 전해지던 떨림이 더 뜨거워졌다. 식구들도 눈치를 챘지만 대놓고 아는 척을 하진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내 혼사를 알아보고 있었다. 육촌인 순희 언니가 두 달 전에 근로정신보국단에 끌려갔다. 남자고 여자고 한 달에 한 명씩은 보국대로 가야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다 큰 딸이 있는 집에선 혼인을 서둘렀다. 결혼한 여자는 안 잡아간다고 했기에 일단 사람만 정해지면 일사천리로 혼인을 하고 시집으로 보내버렸다. 순희 언니도 외가의 동네 총각과 혼인 말을 주고받던 중이었는데 시집보다 먼저 온 순사를 따라 어딘지 모를 곳으로 끌려갔다. 돈 벌러 간

다고 했지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화태로 가겠다는 내 말을 제일 먼저 수긍한 사람은 할머니였다.

“어텐 데도 모르는 데로 끌리가 무슨 옥을 볼지 모르는데 차라리 아 는 데 보내는 기 낫잖나. 석구야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아 아이라.”

석구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텐 모두가 동의했다.

“사람이야 그만한 데도 없지만…….”

그러나 석구가 아무리 믿을만한 사람이어도 화태까지 가는 건 누구도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이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년이 얼른 지나 그가 돌아올 날만 기다리던 내가 갑자기 그에게 가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편지 때문이었다.

옥아, 아무래도 2년 만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여기 온 지 2년이 넘은 아저씨도 보내줄 생각을 안 해서 매일 울면서 일만 하고 있다. 옥아, 내 약속은 지키지 못할 것 같다. 나를 잊어라. 그게 너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다.

손바닥만 한 누런 종이에 또박또박 쓴 글자들은 잉크가 번져 있었다. 옥아, 나를 잊어라. 편지를 받은 그날, 나는 그 말을 수도 없이 되새기며 밤을 꼬박 새웠다. 그리고 동이 트는 새벽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석구에게 가야겠다고, 그곳이 어디든 석구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가 가져온 만식 엄마의 소식이었다. 읍내의 만식 엄마가 남편의 편지를 받고 화태로 간다는 소식이었다. 이 년 후에 오마고 떠난 만식 아버지는 삼 년이 돼서야 겨우 편지가 왔는데, 만식 엄마에게 아이를 데리고 화태로 오라는 소식이었다. “어차피 석구 아니면 혼인도 안 한다카이 니 가고 싶은 데로 가라.”

아버지는 마침내 만식 엄마 편에 나를 같이 보내기로 결심했다. 만식 아버지와 석구가 같은 곳에 있다는 걸 아버지는 박 진사 아들에게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다. 무엇보다 보국대 공출보다는 석구에게 가는 게 낫기 때문이었다.

자작나무 위로 보름달이 불쑥 솟아 오른다. 금덩이처럼 크고 노란 달이 뜨면 숲은 귀기가 서린듯 푸르게 변한다. 하얀 나무결집 때문에 더 질푸르게 보이는 자작나무 숲. 누구는 그 숲이 신비하다고 반하기도 하더라도 난 아직도 그 푸른색이 무섭기만 하다. 흰 광목옷을 입은 몸을 푸른색으로 물들이던 저 자작나무 숲은 늘 뭐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내가 화태 땅에 도착한 것은 음력 7월 보름이었다. 끝도 없이 줄지어 있는 자작나무와 검은 삼나무숲은 태평하고도 음험해 보였다. 시커먼 석탄운반용 기차에 실려 온 나와 만식네는 캄캄한 밤이 되어 서야 허술하기 짝이 없는 합숙소에 도착했다. 환한 보름달이 비친 합숙소는 흡사 감옥 같았다.

“도대체 여가 어디라고…….”

(다음호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иколай Овсиенко посетил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В рамках фактически однодневного рабочего визита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иколай Овсиенко,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Упра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п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е в гуманитарной сфере, нашёл время для посещ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визит продлился всего час, программа была очень насыщенной. Мероприятие началось с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возложения цветов к памятнику легендарному разведчику-нелегалу Киму Евгению Ивановичу. Николай Овсиенко отметил важность сохранения памяти о таких героях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 церемо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Сергей Львович Байдаков,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ак Сун Ок,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и Филипенко Ю.А., директор музей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Далее гости посетили выставочный зал, посвящённый экспози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где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уникальной историей и культур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региона. Затем гости стали свидетелями совместной тренировки по тхэквондо с участием спортсменов с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ми нарушениями и нормотипичных атлетов; посмотрели репетицию выступления корейск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барабанщиков. А в завершение встречи гостей угостили традиционными корейскими пирогами - пянсе. Даже за такой короткий срок удалось прочувствовать атмосферу дружбы и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канал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ТАСС и ЦТАК уполномочены заявить

Москва, 30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 Россия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сфере СМИ, сообщили в воскресень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М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Это очередной шаг на пути к укреплению связей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и Москвой.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сообщило, что накануне подписало соглашение об обмене новостями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российским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агентством ТАСС. На церемон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президент ЦТАК Ким Пхён Хо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ТАСС Андрей Кондрашов.

Росси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во главе с Кондрашовым прибыла в Пхеньян в субботу на мероприятие по подписанию соглашения, сообщило ЦТАК. Это соглашение стало очередным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тес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КНДР и Россией в воен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и других сферах с тех пор, как в 2024 году они подписали договор о взаимной обороне.

Делегац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юза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рейцев посетил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посольство в Москве

31 марта 2026 года в Посольстве КНДР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стоялся торжественный приём по случаю IX съезд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по приглашению Чрезвычайного и Полномочного Посла КНДР в РФ Син Хон Чхоля.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юза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рейцев «КОСАРЁН», а также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спубли-

ки Калмыкия - Постоян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Республики Калмыкия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Ф Герензала Мучкинова.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Д Росс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МВД, ведущих российских научны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рамках приёма обсуждались ключев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боты съезда, а также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и укрепл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https://t.me/saramkor>)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будут созданы полиция и разведслужб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готовится к одной из наиболее заметных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ых реформ последних лет: в стране может быть официально введена "полицейская система", что станет отходом от традиционной дл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модели "органов обще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ланы озвучил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в ходе недавно прошедшей сессии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По данны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МИ, вопрос о создании полиции планируется вынести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парламента на одной из ближайших сессий. Как пояснил Ким Чен Ын, выступая на недавнем заседании парламента, речь идет о "завершении правов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внутренн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оциальн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а также о формировании "эффективной и рациональной системы органов и функций".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оздание полиции является "обязательным требовани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позволит повысить уровень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зарубежных экспертов привлекло сам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термина "полиция", который традиционно не характерен дл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стран. Сами по себе аналогич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и службы были во всех соцстранах, но традиционно их называли иначе, применяя обороты "обществен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или "органы охраны порядка". В КНДР функции, аналогичные полицейским, до сих пор выполняло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ще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торое, по всей видимости, может быть преобразовано в новую структуру.

Ким Чен Ын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введение полиции позволит четко разграничить функции между различным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ми органами и упрости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между ними, а также создаст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зарубежными структурами, что подчеркивает стремление Пхеньяна привести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ую систему к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тандартам".

Реформа может затронуть и другие ключевые силовые ведомства. В частно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ыполняющее функции внутренней разведки и политического контроля, по данны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сточников, уже сменило название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ую службу". Это может 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ть о попытке придать структурам более "современный" и привычный для внешнего мира облик.

Южнокорейские эксперты отмечают, что речь идет не только о переименовании и формальной реорганизации. По их оценке, создание полиции означает дальнейшую специализацию и усиление системы контроля внутри страны. В частности,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более четкое разделение функций между органами внутренн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авопорядка и судебной системой, а также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подавления потенциальных источников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Возвращая забытые имена Как корё-сарам заново вписывают свою историю в историю Кореи



С 2025 года, объявленного годом 80-лети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усиливается внимание к вкладу корё-сарам в борьбу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траны. Постепенно в общественное и науч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возвращается пласт истории, который долгое время оставался на перифер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нарратива.

Речь идёт прежде всего о событиях в Приморье и Маньчжурии — регионах, где формировались отряды, создавались политические структуры и велась борьба против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и. Для корё-сарам это не абстрактная история, а часть семейной памяти и собствен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Одним из заметных проектов стал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о генерале Хон Бомдо, инициатором Мемориального обществ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до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Фильм создавал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краудфандинга, и в его реализац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корё-сарам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азахстана и России. Даже небольшие пожертвования стали важной частью общего дела.

Параллельно был реализован проект «Календарь памяти героев корё-сарам». Это не только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кампания, но и реальный печатный календарь, подготовленный Обществом поддержки корё-сарам «Номо» и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аждый месяц был посвящён одному участнику независимого движения. Календари распространялись как в Корею, так и среди корё-сарам в странах СНГ.

Проект получил продолжение в медиапространстве. В русскоязычных СМИ корё-сарам в Казахстане, России и других странах СНГ регулярно выходили публикации с календарными листами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о жизни и подвиге герое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инициатива вышла за рамки одной страны и приобрела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Материалы также размещались на сайте www.kogyo-saram.site, который ведёт исследователь Дмитрий Шин.

В 2025 году проект представил 12 героев: Хон Бомдо (홍범도), Ан Чжунгын (안중근), Чве Чжэхён / Цой Пётр Семёнович (최재형), Александра Ким-Станкевич (알렉산드라 김 스타нке비치), Ким Гёнчхон (김경천), Ге Бону (계 보누), Ли Донхви (이동희), Ли Сансоль (이상설), О Сонмук (О Сонмук Пет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Лю Инсок (유인석), Ким Афанасий Арсеньевич (김 아파나시), Чо Мёнхи (조명희)

В 2026 году проект был продолжен — в календарь вошли ещё 12 имён. При этом сами герои стали предметом научного обсуждения. Так, герои первых месяцев 2026 года — Хан Григорий (한창걸), Ким Михаил (김미하일) и Ким Бякчу (김규면) — были вынесены в центр обсуждения IV Форума Академии Хон Бомдо

Форум прошёл 26 марта в Сеуле. Его организовали Ассоциация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 Мемориальное общество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до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В первой части форума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Вадим Акуленко представил доклад о судьбах трёх независимых деятелей — Хан Григорий (한창걸), Ким Михаил (김미하일) и Ким Бякчу (김규면). Речь шла не только о биографиях, но и о более широком контексте участия корё-сарам в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м движении.

Во второй части форума выступил почётный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Пан Бённюль (반병률). Его доклад был посвящён новым интерпретациям харбинского покушения Ан Чжунгына (안중근) на Ито Хиробуми. На основе недавно выявленных архивных материалов, в том числе из российских архивов, были предложены уточнения, касающиеся структуры движения, роли отдельных участников, а также характера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нутри независимого движения.

Форум показал, что тема корё-сарам постепенно выходит за рамки узко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становится частью более широкого научного обсуждения.

В своём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глава Ассоциации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Тен Жанна отметила: «Вклад корё-сарам в борьбу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 это исторический факт, но на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он до сих пор остаётся недостаточно осмысленным и недооценённым».

Она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а связь с сегодняшним днём: «Потомки корё-сарам живут в Корею, но их история по-прежнему требует объяснения. А значит, речь идёт не только о прошлом, речь идёт о признании и будущем».

Такой разговор сегодня выходит за рамки исторической темы. Он становится частью более широкого вопроса о том, какое место занимает корё-сарам в истор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и Кореи.

(Пресс-релиз АКРК)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еул подтвердил отказ от поставок летального оружия Киев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своей прежней позиции не поставлять летальное оружие Украине. Об этом заявил 30 март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напомнив, что Сеул оказывает Киеву различные виды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Одновременно в Сеуле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ят за развитие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и Москвой в военн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ое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считает нарушением резолюций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и угроз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 добав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МИД.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Сеуле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и высказывание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Андрея Руденко. В интервью агентству ТАСС 28 марта он заявил, что Москва будет вынуждена принять ответные меры в отношении Сеула в случае поставки оружия киевскому режиму. Одновременно Руденко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Москве не придется идти на такие шаги.

Открыт новый веб-сайт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30 марта открыт новый веб-сайт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призванный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лучшей коммуникации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страны. Открытие сайта приурочено к трёмстам дням пребывания Ли Чжэ Мёна на посту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До сих пор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использовала временный веб-сайт с доменом, оставшимся от предыдущ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н Сок Ёля. На новом сайте добавлены некоторые новые функции, позволяющие гражданам предлагать политические решения. Эт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политике нынешнего президента,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ей общение граждан с руководством стра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стремится не допустить дефицита товаров

Последствия ближневосточного конфликта превращаются в сложный кризис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в виде серьёзной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энергоснабжения и сбоев в глобальных цепочках поставок.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Ким Мин Сок, выступая 29 марта на экстрен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вещании. Пообещав принять превентивные меры против возможного возникновения дефицита товаров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гла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ейчас важно правиль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потенциальные сбои поставок. В нынешней ситуации бездействия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неудобствам для населения. "Мы должны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влияние сбоев поставок товаров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на экономику. При этом важно проработать различные сценарии и подготовить необходимые планы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кризис", - подчеркнул Ким Мин Сок. Он призв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тщательно пересмотреть перечень товаров, в поставках которых возможны перебои, а также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своевременному исполнению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исательница Хан Ган удостоена премии NBCC Award

Южнокорейская писательница, лауреат Нобелевской премии по литературе Хан Ган стала лауреатом прем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руга книжных критиков США - NBCC Award. Она удостоена премии в категории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за английское издание романа «Я не прощаюсь» (We Do Not Part) в переводе Ли Е Вон и Гэйдж Моррис. Роман, опубликованный в сентябре 2021 года, описывает траг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апреля 1948 года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глазами трёх женщин. Жители острова восстали против правления военных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США. Хизер Скотт Паррингтон,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п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е NBCC Award, описала роман как «тонко проработанный набросок травмы, размышление о сотворении мира и истине среди потерь», добавив, что он «остаётся в памяти, как атмосферный, захватывающий сон». Сама писательница не приехала на церемонию, состоявшуюся 26 марта в Нью-Йорке, но в обращении поблагодарила переводчицу, сказав, что всё ещё хочет верить в «мерцающий внутри нас свет».

Альбом Aigang группы BTS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в чарте Billboard 200

Пятый студийный альбом группы BTS под названием Aigang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в главном альбомном чарте США Billboard. Новый альбом группы остаётся на вершине Billboard 200 на неделе с 29 марта по 4 апреля. В чарте Billboard 200 представлены самые популярные альбомы недели в США, оцениваемые по эквивалентным альбомным единицам (EPU), включая продажи физических копий альбомов, эквивалентные продажи треков (TEA) и эквивалентные продажи стриминговых сервисов (SEA). Альбом Aigang стартовал с 641 тысячи эквивалентных альбомных единиц. По данным Billboard, это самый большой показатель продаж за неделю для альбома группы с момента начала измерения показателя в декабре 2014 года.

RKI

Южная Корея готовится к глубокому кризису, власти говорят об экстренных мерах

В Южной Корее все сильнее ощущение, что страна входит если пока не в полномасштабный кризис, то как минимум уже в очень неприятную и опасную полосу.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впервые заговорил языком, который в 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ке обычно приберегают на крайний случай: он допустил использование чрезвычайных финанс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полномочий,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конституцией.

Для Сеула это уже само по себе тревожный сигнал. Пока власти избегают слова "кризис" в его полном смысле, но набор симптомов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более характерным: ослабление воны, скачок цен на топливо, сбои в поставках сырья, риск остановки части нефтехимических производств, рост транспортных расходов, проблемы у авиакомпаний и уже вполне реальные меры экономии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Президент упомянул о своих чрезвычайных полномочиях

30 марта Ли Чжэ Мён, выступая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дал понять, что действовать по старым бюрократическим шаблонам больше нельзя. Он прямо сказал, что в условиях, когда Корея глубоко зависит от внешних рынков и в особенности от ближневосточных энергоносителей, нужны более тщательная проверка обстановки и более точные чрезвычайные меры. По его словам, ограничиваться "обычными процедурами" уже недостаточно, а если потребуются, государство дол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есь набор полномочий и возможностей по максимуму.

Как отмечают эксперты, само упоминание статьи 76 конституции РК, позволяющей президенту в тяжелой ситуации принимать финанс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е решения, имеющие силу закона, без ожидания созыва парламента, показывает: речь идет не о рядовом ухудшении конъюнктуры, а о подготовке к сценарию, который в Сеуле считают по-настоящему опасным.

Уровень ресурсной угрозы повышен официально

1 апр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сделало новый шаг и официально повысило уровень тревоги в сфере ресурс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 полуночи 2 апреля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по нефти было переведено со ступени "внимание" на ступень "тревога" - это уже третий уровень из четырех возможных. По газу уровень также повышен - с первой ступени до второй. Формально этот шаг объясняется тем, что ситуация перестала быть просто опасением и уже начала наносить прямой удар по экономике 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ласти указывают на конкретные признаки ухуд-

шени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20 марта в Корею прибыл последний танкер, прошедший через Ормузский пролив до фактической блокировки маршрута, поставки нефти этим каналом более чем на десять дней прекратились.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речь идет уже не просто о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тревоге, а о реальном нарушении логистики.

Во-вторых, власти собираю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схему свопов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запасов с частными нефте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ми компаниями, чтобы не дать рынку задохнуться.

Отдель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 жесткий контроль за производными нефтепродуктами и нефтехимическим сырьем. Государство намерено запретить спекулятивное накопление нефти, добиваться перевода части экспортных объемов на внутренний рынок и поддерживать импорт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партий, компенсируя разницу в закупочной цене через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Одновременно обещано ужесточение надзора за рынком, чтобы население реально почувствовало эффект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ерхним ценам на нефть.

Параллельно Сеул спешно собирает более координированную систему макр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еагирования. Создан новый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й совет из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министра по бюджету и главы финансового регулятора. На первом же заседании они обсуждали не абстрактные реформы, а именно последствия войны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как можно быстрее провести через парламент и запуст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объемом 26,2 трлн вон.

Обещаны программы помощи населению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тревожных маркеров стало движение курса национальной валюты - воны. Вона во вторник опустилась до 1530,1 за доллар - худшего уровня с марта 2009 года, то есть со времен глобальн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кризиса.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где критически велика доля импорта энергоносителей, сырья и внешних расчетов, это сразу означает рост издержек почти по всей цепочке.

На фоне эт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двигает программу прямой поддержки населения. Речь идет о выплатах до 600 тысяч вон (около 400 долларов) для получателей из нижних 70 процентов по уровню доходов. Программа должна охватить около 35,8 млн человек, а на е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ланируется направить около 4,8 трлн вон. Замысел понятен: поддержать внутренний спрос и хотя бы частично смягчить удар по домохозяйствам и малому бизнесу на фоне роста затрат на энергию и логистику.

(Продолжение на странице 7)

В Сеуле призвали Южную Корею к большей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и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РФ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озвучал призыв к пересмотру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и укреплению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и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позицией выступил известный эксперт по РФ, член Комитета советников по политике при МИД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почетный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Хон Ван Сок. Его статья опубликована в одной из ведущи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азет - "Мунхва Ильбо".

Автор обращает внимание на то, что курс нынешних властей на "прагматичную дипломатию, основанную на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ах", по его мнению, "почему-то н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Росс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ую в Сеуле точку зрения о том, что нормализация отношений с Москвой невозможна до завершения конфликта на Украине и снятия западных санкций, Хон считает чрезмерно упрощенной. По его словам, "внешние ограничени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грают роль, однако куда более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он называет рост совокупной мощи самой Южной Кореи и изменение баланса сил.

Анализируя последствия конфликта вокруг Украины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эксперт выделяет несколько ключевых эффектов: фактическую "необратимость" ядерного статуса КНДР, трансформацию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США и России в "опосредованное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Севера и Юга", а также укрепление военного союза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и Москвой. Все это, по его оценке, "усилило жесткость системы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полуострове".

Вместе с тем, по мнению автора,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Южная Корея существенно увеличила свое влияние, вес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елах, а потому ей следует дей-

ствовать боле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и смело.

Несмотря на сохраняющуюся в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некоторую напряженность, текущий период профессор Хон рассматривает как "своего рода этап роста", связанный с переоценкой отношений на основе нового баланса сил. По его мнению, это "переходный этап, необходимый для более крупного скачка в будущем".

В этой связи автор предлагает правительству Южной Кореи пересмотреть подход к России. Среди ключевых принципов он называет уход от "инерционной логики обмена экономики на безопасность", преодоление "дихотомии, при которой Запад всегда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добро, а Россия - как зло", а также отказ от восприятия отношений с Москвой через призму "игры с нулевой суммой" в контекст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фактора.

Ключевым элементом "прагмат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Юга эксперт называет именн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диалога с Россией. При этом он подчеркивает, что Сеулу не следует "пассивно ожидать" завершения конфликта на Украине и снятия санкций, а необходим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создавать условия для улучшения отношений".

В числе практических шагов он предлагает рас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смягчения или отмены односторонних санкций Южной Кореи против России, а также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по вопросам, представляющим взаимный интерес.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речь идет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Арктике и развитии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что, по его мнению, может стать "кратчайшим путем к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отношений".

(Олег Кирьянов, РФ)

Доходы бюдж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26 году вырастут

Депутаты островной Думы на очередном заседании одобрили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поправках в региональный бюджет на 2026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27 и 2028 годов. Представленный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народных избранников документ был разработан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егиональный бюджет поступят 4,2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от компании «РусГидро». В результате общий объем доходов 2026 года составит 195,1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на сдерживание роста тарифов на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для населения.

Ситуация на мировом нефтегазовом рынке, курс доллара, санкции со стороны недружеств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сказываются на доход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сть главн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докумен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провело оптимизацию расходов бюджета.

Мы сократили инвестици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ъекты в рамках областной адресной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ограммы, отодвинули срок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ряда объектов. Нашим приоритетом остается социальная сфера. Мы продолжим выделять средства на поддержку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мощь участникам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их семьям, на достижен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ей, которые определи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Медицинск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образование, услуг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дорог, все, от чего зависит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наших земляков, будет профинансировано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 подчеркну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Как доложила министр финанс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льга Лопати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гиона проведена огромная работа по перераспределению ресурсов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Мы оптимизировали 20,8 млрд рублей и перенаправили их на самое важное: зарплаты бюджетников в связи с увеличением минимального размера оплаты труда с 1 января 2026 года, соци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граждан, ЖКХ и обеспечение стабильной работы ресурсоснабжающих организаций,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авиа, морские, и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е перевозки, а также на погашение кредиторской задолженности, - отметила Ольга Лопатина.

Депутаты единогласно поддержали предложенные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бласти поправки.

Жители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могут быть спокойны: ключевые направления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продолжают получать необходим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Вс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еред гражданами в текущем году будут выполнены. Такова позиция нашего губернато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и депутатского корпуса, - сказа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Елена Касьянов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пакет поправок тщательно изучался в думских комитетах и фракциях.

Мы рассмотрели документ на заседании комитета по бюджету и налогам и решили его поддержать. Поправки помогут сбалансировать бюджет. При этом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что все региональные социальные льготы сохранены, - отметила депутат Думы, председатель постоян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бюджету и налогам Наталья Захарчук.

Народный избранник Владимир Розумейко - главный врач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поэтому он детально информирован о состоянии дел в отрасли.

Поправки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 выдел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сумм 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Так, часть средств пойдет на повышение зарплаты медиков в связи с ростом минимального размера оплаты труда, а также на закупку лекарственных препаратов и расходных материалов. В общем, несмотря на сложный бюджет,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в прежних объемах, - подчеркнул Владимир Розумейко.

Принятые корректировки позволят региону уверенно двигаться вперед, сохраняя устойчивость бюджетной системы и выполняя все задачи, поставленные перед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лено действи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для граждан, нуждающихся в гемодиализ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одлено действи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для граждан, проходящих процедуру гемодиализа в учреждениях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м будет, как и прежде, возмещать часть затрат на аренду жиль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Гемодиализ - это метод внепочечного очищения крови при острой или хронической почечной недостаточности с помощью аппарата «искусственная почк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оснащенные этой аппаратурой, есть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ежду тем, 185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нуждаются в регулярном проведении этой процедуры. Часть этих людей проживает в други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Им приходится время от времени приезжать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и снимать жиль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ля них была введена новая региональная мера поддержки.

Гемодиализ - процедура, от которой в прямом смысле слова зависит жизнь наших земляков. Нельзя, чтобы однажды кто-то из них отказался от проведения этой манипуляции, потому что не хватает средств на аренду жиль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время лечения. Поэтому мы

начали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пациентам эти расходы, исходя из фактических затрат. Предельная сумма - 40 000 рублей в месяц. И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 сохранить эту меру поддержки и в 2026 году,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растет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где проводится процедура гемодиализ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подразделение в этом году открыло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отдельном корпусе городск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имени Анкудинова. Оно оснащено шестью койками, за две смены здесь могут пройти гемодиализ до 12 человек.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порядке получения компенсации можно уточнить в отделениях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ий филиал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медуниверситета в этом году удвоит набор студентов

Сахалинский филиал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университета во вторую приемную кампанию почти вдвое увеличит прием абитуриентов - до 50 человек. Также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и ведущий медицинский вуз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будут расширя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научной сфере.

Об этом договорились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ректор ТГМУ Кирилл Стегний, прибывший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с рабочим визитом.

— Совместно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ы открыли филиал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университета, где уже обучаются первые студенты - 28 человек. В основном это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них это удобно, они получают образование у себя дома 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практику на базе лечебно-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родного региона. В этом году мы готовимся увеличить прием по программе «Лечебное дело» до 50 человек, - рассказал Кирилл Стегний.

Глава области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ведущим медвузо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правлено на решение кадрового вопроса в медицинской сфере.

— Перед нами стоит задача за шесть лет обучить 300 врачей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филиала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медуниверситета.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нашей молодежи получать высшее медицин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не выезжая за пределы региона.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ребята остану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ботать и создавать семьи. Для этого обеспечиваем все условия,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встрече обсуждалось и углубл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уза и региона в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сфере. Ректор ТГМУ предложил использовать мощности университета - медико-генетический центр 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ую аптеку - для изготовления БАДов из сахалинских эндемиков и изучения генетических данных островных народностей. Кроме того,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инициатива о привлечении профессорского состава и зарубежных партнеров вуза к проведению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операций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их медучреждений.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в регион Кирилл Стегний также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о студентами, где рассказал о планах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филиала. Напомним, он заработал 1 сентября 2025 года. На переходном этапе студенты проходят обучение в гибридном формате. Часть занятий организованы в головном вуз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часть -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их медучреждений. Сейчас студенты получают образование по программе специалитета «Лечебное дело». В перспективе здесь можно будет окончить и ординатуру.

— Я отучилась в Сахалинском медколледже, получила образование фельдшера и решила продолжить обучение. У меня целевое направление от областного онкодиспансера, после вуза буду там работать. Учеба очень нравится, условия хороши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отличные, - рассказала первокурсница сахалинского филиала ТГМУ Кристина Чеботаре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храняют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м предприятия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активом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Женщины бизнеса». Участниц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и сахалинки, которые успешно развивают собственное дело или занимают руководящие посты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Женщины-руководители озвучили главе региона волнующие их вопросы. Так,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ндивид» Яна Путилова поинтересовалась, продолжит ли регион поддерживать социальный бизнес.

— С 2020 года я работаю в сфере детск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Моя команда помогает детям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в развитии речи и когнитивных функций, оказывает услуги в сфере инклюзи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чтобы научить ребят комфортно себя чувствовать в социуме. Я приехала из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Сахалин стоит далеко вперед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по поддержке и социального бизнеса, и людей, которым необходима такая помощь.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эти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сохранялись, - обратилась к губернатору Ян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обнадежили: для поставщиков социальных услуг продолжат действовать и субсидии, и грантовые программы.

— Вы занимаетесь непростым и важным делом - за-

ботитесь о людях, которые в этом особенно нуждаются. Спасибо за то, что качественно выполняете свою работу. Я знаю это достоверно от наших жителей, потому что лично веду прием по соци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Ответственный бизнес мы всегда будем поддерживать,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нтересы креатив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представила Ирина Карпова, создатель бренда одежды и аксессуаров «Сахалин такой один».

— В 2024 году наш бренд, единственны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ошел в финал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Заповедный сувенир», который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фонда культурных инициатив. Хотелось бы больше участвовать в ярмаро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за пределами региона, но расходы приличные - аренда шатра, перелеты, гостиницы. Возможно ли возмещение хотя бы части наших затрат? - уточнила Ирина.

Ремесленников пригласили участвовать в новом проекте, запущенно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продвижения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рошедшие конкурсный отбор товары бесплатно попадут на витрину конгрессно-выставочного павильона «Сахалин Экспо». Их будут экспонировать во время крупных форумов, которые проходят на острове. Кроме того,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 лучшие изделия представят на выставках по всей России и за рубежом.

Сахалинское отделе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Женщины России» действует в регионе с 2022 года. Сегодня организация объединяет 118 участниц.

Ремонт в школе, порядок на детской площадке и подтопление подвалов: «Губернаторский контроль» побывал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Специалисты контро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активисты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проверили, насколько эффективно выполняют поручения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Из 15 поручений 10 выполнены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По четырем еще не вышел срок, и работа продолжается. Одно поручение было возвращено на контроль. По документам администрация отчиталась, что проблема подтопления подвального помещения устранена. Но на месте ревизоры увидели, что грунтовые воды продолжают поступать.

— Всего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обнаружено четыре подвала с грунтовыми водами.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приняли временные меры, установили насосы, откачали воду. Но нужно комплексное инженерное решение, чтобы подтопления ушли навсегда,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контро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лексей Юрьев.

Жильцы дома на улице Школьной, 50б рассказали ревизорам, что в квартирах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плесень из-за постоянной сырости в подвале.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проводит осушку и очистку, но это помогает лишь на время. Исправить ситуацию поможет обустройство ливневой и дренажной систем на придом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Подтопления зафиксировали также на Морской, 6, Советской, 123 и 60 лет Октября, 3/1. По каждому адресу должны разработать варианты решения и провести необходимые работы в этом году.

В некоторых холмских подвалах уже победили проблему. К примеру, на Капитанской, 1 заменили часть внутридомовых сетей водоотведения, и подтопления стоками ушли в прошлое. В другом случае убрать грунтовые воды из подвалов помог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двора между домами на Первомайской, 11 и Флотской, 21. Здесь предусмотрели ливневую канализацию для быстрого отвода осадков и талых вод.

Во время поездки «Губернаторского контроля» решили и вопрос с помещением для гаража Холмской ЦРБ. Экспертиза рекомендовала снести здание, где он располагается.

— Был найден бокс,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заключат договор аренды, и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скорой помощи будут обеспечены надлежащие условия труда. «Губернаторский контроль» - действенный инструмент, который позволяет доносить до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олнующие людей вопросы и получать оперативные решения, - отметила гла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сполкома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Елена Силачева.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ревизоры побывали не только в райцентре, но и в селе Чехов. По следам обращений жителей в ЦУР они отправились на Парковую, 74а. Во дворе увидели огромную лужу и обледеневшие тротуары. Управляющей компании высказали замечание о плохой расчистке снега и рекомендовали убрать лед, чтобы пешеходам было комфортно передвигаться.

Положительные впечатления оставила школа в Чехове.

— В прошлом году у нас сделали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Обновили фасад, заменили окна,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лестничные марши, а также благоустроили территорию. Мы очень довольны,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школы Людмила Сизова.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рейда «Губернаторского контроля» сформирован итоговый отчет. О результатах инспекционного выезда доложат лично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ения, выданны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 профильным органам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будут находиться на контроле до их полного исполнен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세계한인회장대회, 재외동포가 직접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담는다

고상구 운영위원장, "일회성이 아닌,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상시적으로

전 세계 동포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포부 밝혀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26일(목) 신임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장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하고,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전 세계 한인회장들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체제로 본격 거둔다게 되었다고 밝혔다.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이 임명됐으며,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운영위원장으로 전 세계 한인사회의 역할을 결집하고 모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번 임명식은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 3월 9일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장에 게 재외동포청장이 임명함에 따라 진행됐다.

앞서 운영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의 기조를 반영하여 동포사회가 직접 대회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고상구 신임 운영위원장은 "그간 재외동포사회는 정부의 도움을 받는 존재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모국 대한민국에 힘을 보태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나

야한다"며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장으로 서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으로 전 세계 한인사회를 연결하고 협력하는 글로벌 동포 네트워크의 중심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날 참석한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인 김기영 아시아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은 "신임 운영위원장은 현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베트남 한인회총연합회장, 제18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 제21기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부의장을 두루 역임한 만큼

한인사회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포사회의 화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민간 운영위원장 임명은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에 따라 세계한인회장대회 주권을 한인회장들에게 돌려드린 것"이라며

"이제 동포사회가 대회를 운영하는 주체로 거듭난 만큼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이 이러한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세계한인회장대회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신문 제공)

Южная Корея готовится к глубокому кризису, власти говорят об экстренных мерах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анице 5)

В целом ж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огласовало программу экстренной помощи экономике на 26 трлн вон (около 17,3 млрд долларов). Деньги пойдут на смягчение негативных последствий войны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Но и здесь реакция неоднозначная. Сторонники считают, что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деньги оживят локальную торговлю и рынок услуг, тогда как критики предупреждают: эффект может оказаться краткосрочным, а часть средств уйдет не в малый бизнес, а в те сектора, где мультипликатор для экономики слабее.

Пок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веряет, что инфляционный эффект будет ограниченным, так как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не требует выпуска новых гособлигаций. Но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уже вполне заметно настро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о спешно тушит очаги, опасаясь, что без этого они начнут сливаться в один большой пожар.

Россия поможет? Или кто-то еще?

Особенно остро кризисная логика проявилась в нефтехимии - одной из базовых отраслей 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Именно здесь зависимость от ближневосточного сырья оказалась болезненной.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их СМИ, LG Chem уже экстренно ввезла в нефтехим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в Тэсане около 27 тысяч тонн российской нефти. Но в самой отрасли эту поставку описывают без иллюзий: это не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ы, а вынужденная и временная подпорка. При среднем месячном потреблении нефти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 уровне около 4 млн тонн такой объем покрывает только примерно три-четыре дня.

Корейская зависимость от ближневосточной нефти оценивается в 44,7 процента. До конфликта России и Украины доля российской нефти составляла около 20 процентов, но затем она была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вытеснена ближневосточным сырьем, из-за чего зависимость от одного региона только усилилась. Теперь эта прежняя "перенастройка" бьет по самой Корее.

При этом у россий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свои жесткие ограничения. Руководство LG Chem уже признало, что часть объема удалось закупить в пределах допускаемых американскими санкциями рамок, но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закупки рассчитывать трудно. Срок действия смягченного американского режима по части российских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истекает 11 апреля, а Европа, в отличие от США, не намерена ослаблять свою санкционную политику. Для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с глобальной сетью это означает не только политический, но и корпоративный риск: если они произведут продукцию на основе российской нефти и попытаются вывезти ее на европейский рынок, тамошние регуляторы могут начать отслеживать происхождение сырья и создать проблемы уже всей группе.

Поэтому параллельно Сеул и бизнес лихорадочно ищут сырье в США и Африке. Однако и это спасение с подвохом. Если ближневосточная нефть обычно идет в Корею около 20 дней, то обходные маршруты вокруг Африки увеличивают путь на 7-9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и могут растянуть доставку до 50 дней. То есть сырье, заказанное по высоким военным ценам, может прийти уже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войны - если та вдруг закончится быстрее - и тогда компании останутся с дорогим сырьем на падающем рынке. В итоге может сложиться максимально невыгодный сценарий: купил дорого, ждал долго, получил в момент, когда уже поздно.

Цены и логистика тем временем уже ушли вверх. Стоимость самой нефти поднялась примерно с 600 долларов за тонну до более 1100 долларов. Индекс контейнерных ставок SCFI за месяц вырос на 37 процентов, а тарифы на ближневосточных линиях превысили 3300 долларов, увеличившись более чем в 1,4 раза за месяц.

Нефтехимические предприятия пока пытаются держаться, снижая загрузку мощностей до 50-60 процентов, но в отрасли открыто говорят: при затягивании войны часть заводов придется останавливать. Даже если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прекратятся очень быстро, на полное вос-

становление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может уйти до полугода.

Мусорные пакеты

- проблема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уровня

На этом фоне даже история с возникшим в отдельных районах Южной Кореи дефицитом стандартных мусорных пакетов перестает казаться смешной мелочью. Эти пакеты производятся из пластикового сырья, завязанного на нефтехимию, и опасения по поводу перебоев поставок нефти спровоцировали панические закупки.

Президент Ли был вынужден отдельно комментировать эту тему, заявив, что запасы в целом достаточны и проблема отчасти раздута, а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при нехватке должны координировать действия с соседями. Но сам факт того, что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говорит о мусорных пакетах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хорошо показывает градус нервозности.

"Меньше мойтесь и пылесосьте по расписанию"

Вместе с тем вла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переводят режим экономики из разряда рекомендаций в более жесткий формат. С 8 апреля для служебных и личных легк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сотрудник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водится более строгий режим ограничений: вместо уже действовавшей системы "пятидневки" применяется фактически четно-нечетный допуск. В нечетные дни могут ездить машины с нечетной последней цифрой номера, в четные - с четной. При этом вводится и система "трех предупреждений": первое нарушение - устное замечание, второе - доклад руководству и запрет въезда на парковку, третье - дисциплинарное взыскание.

Для плат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парковок, управляем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и муниципальными структурами, сохраняется пятидневная схема допуска по номеру автомобиля. Частный транспорт в целом пока не переводят на принудитель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но фактически создают систему мягкого давления: формально это "добровольное участие", однако доступ к порядку 30 тысячам плат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стоянок будет ограничиваться по номеру машины. К примеру, в понедельник не смогут въехать автомобили с последней цифрой номера 1 и 6, во вторник - с номерами 2 и 7 и т. д.

Власти также рекомендую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чреждениям шире использовать гибкий график, разводить потоки сотрудников по времени, сокращать необязательные командировки и активнее переходить на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Министерству транспорта поручено стимулировать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и смягчать для граждан стоимость поездок. В энергетик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повышение коэффициента использования АЭС и даже продление работы угольных станций, которые ранее собирались выводить из эксплуатации.

Правда, эти меры сразу же подверглись критике. Во-первых, исключений слишком много: электромобили, водородные автомобили, машины инвалидов, беременных, ряда спецслужб, а также те авто, которые руководитель учреждения сочтет необходимыми, вообще не подпадают под ограничения. По оцен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коло 25 процентов машин сразу выводятся из-под режима.

Во-вторых, сами власти признают: даже если все меры будут реализованы, эффект в абсолютных цифрах окажется ограниченным на фоне суточного потребления нефти страной на уровне примерно 2,816 млн баррелей.

Даже собственные оцен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это показывают. Пятидневный режим для служебных и личных машин сотрудников госучреждений может сэкономить от 6900 до 35 тысяч баррелей нефти в месяц, более строгий четно-нечетный режим - от 17 тысяч до 87 тысяч баррелей в месяц. Ограничения по общественным парковкам дадут еще порядка 5-27 тысяч баррелей в месяц. На бумаге цифры не нулевые, но на фоне общего потребления страны эффект выглядит очень скромным.

Есть и вопрос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Электромобили оставлены вне ограничений, хотя в энергобалансе стра-

ны уголь дает 28,7 процента генерации, сжиженный природный газ - 27,4 процента, то есть больше половины электричества все еще производится из ископаемого топлива. Атомная энергетика дает 31 процент, возобновляемые источники - 11,4 процента. На этом фоне критики спрашивают: почему бензиновую малолитражку ограничивают, а электромобиль, заряженный от угольной генерации, - нет?

Не меньше насмешек и раздражения вызвали опубликованные ранее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народной экономии энергии": соблюдать оптимальную температуру в помещении, выключать ненужный свет, сокращать время душа, заряжать электромобили и телефоны днем, а стиральные машины и пылесосы использовать в выходные. Проблема в том, что власти не показали, какой имен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й эффект дают эти советы. Получилось что-то в духе "мы на гран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тревоги, поэтому, пожалуйста, меньше мойтесь и пылесосьте по расписанию". Народ, мягко говоря, не впечатлился.

Авиакомпании переходят в режим выживания

Еще одно направление, которое очень сильно пострадало от нынешних проблем, - авиаперевозки. Здесь удар идет сразу по несколь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подорожание авиационного топлива, ослабление воны и рост всех долларовых затрат - от лизинга самолетов до техобслуживания.

С 1 апреля топливные сборы на авиабилеты в Южной Корее выросли почти втрое. У Korean Air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рейсах они увеличились с максимум 99 тысяч вон до 303 тысяч вон в одну сторону. У Asiana - с 78,6 тысячи до 251,9 тысячи вон. Для пассажира, летящего в Европу рейсом Asiana, это означает примерно 350 тысяч вон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нагрузки на билет туда-обратно, а для семьи из трех человек - уже свыше миллиона вон.

Причина проста: средняя цена сингапурск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топлива, на основе которой рассчитываются надбавки, выросла примерно на 60 процентов из-за войны с Ираном. И самое неприятное в том, что майские сборы могут оказаться еще выше. Если дорогая нефть удержится и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апреля, то сборы с мая могут снова вырасти примерно в полтора раз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нынешним уровнем.

Сами авиакомпании уже фактически входят в режим чрезвычай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сле T'way и Asiana к нему подключилась и крупнейш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страны - Korean Air.

Начались сокращения рейсов. Ранее пять лоукостеров уже отменили часть направлений, а Asiana объявила о сокращении 14 международных рейсов, в том числе на китайском и камбоджи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ях.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трасли признают: даже рост топливных сборов не покрывает весь скачок затрат. У крупных перевозчиков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частично хеджировать цены, а вот у лоукостеров финансовый запас прочности куда меньше.

Кризис уже у порога...

Все это вместе создает именно ту атмосферу, которую власти пока еще стараются не называть открыты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кризисом, но которая все больше напоминает предкризисную. У страны сохраняются инструменты для маневра: запасы,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закупк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меры, готовность задействовать АЭС, уголь, транспортн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и прямую поддержку населения. Но одновременно множатся признаки того, что "обычными" способами удерживать ситуацию будет все труднее.

Южная Корея пока не рухнула в пропасть, но уже явно подошла к краю довольно неприятного склона. И если еще недавно разговор шел о рисках, то теперь речь идет уже о реальных перебоях, реальных потерях и реальных ограничениях. Поэтому слова президента о чрезвычайных полномочиях звучат не как политическая фигура речи, а как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Сеул готовится к варианту, при котором экономику придется спасать уже не косметическими, а жесткими экстренными мерам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Решение о назначении пособия принимается в течение 10 рабочих дней после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Если потребую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или сведения, срок рассмотрения может быть продлен до 20 рабочих дней.

아에로플로트, 여름철 유즈노사할린스크 노선 증편

여름 휴가철과 학교 방학이 겹치는 성수기를 맞아 항공편 운항 횟수가 늘어났다.

아에로플로트는 모스크바와 극동 지역을 잇는 항공편을 매년 여름 성수기에 증편하고 있다. 추가 항공편은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회사 홍보실은 여름 성수기 절정기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노선이 주 20회까지 운항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에로플로트는 계획된 주 20회 운항편 가운데 11회를 자체 운항하고, 나머지는 러시아 항공과 아이플라이 항공이 맡는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와 블라고웨센스크 노선의 수요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스크바 왕복 주간 운항 횟수는 다음과 같다.

- 블라디보스토크: 주 42회(아에로플로트 주 33회 포함)• 블라고웨센스크: 러시아 항공 주 5회• 아나디르: 러시아 항공 주 4회• 마가단: 러시아 항공 주 8회• 하바롭스크: 주 32회(아에로플로트 주 21회 포함)•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 아에로플로트 주 27회• 울란우데: 아에로플로트 주 14회• 야쿠츠크: 아에로플로트 주 9회

다가오는 시즌에는 모스크바-하바롭스크 노선의 수요가 크게 늘어 2025년 같은 기간보다 공급 좌석 수가 5만1,000석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모스크바-블라고웨센스크 노선과 모스크바-야쿠츠크 노선의 좌석 수도 확대됐다. 그 밖의

노선 운송 규모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승객들은 정부 보조금 제도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또 러시아 항공과 아이플라이 항공을 이용할 경우, 아에로플로트보다 수천 루블리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수도와 극동 도시를 잇는 직항편 외에도 승객들은 시베리아의 허브 공항을 경유해 미르니, 네룬그리, 치타, 아나디르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6월 중순부터는 샹트페테르부르크-블라디보스토크 노선도 운항될 예정이다.

Аэрофлот летом увеличит количество рейс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Частота доступных перелетов вырастет в пиковый сезон летних отпусков и школьных каникул.

Авиакомпания «Аэрофлот» традиционно увеличит частоту рейсов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городам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ейсы начнут вводить с конца мая. В пиковые даты летнего сезо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будут совершать до 20 рейсов в неделю,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компании.

Аэрофлот будет выполнять 11 рейсов из 20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остальные вылеты — на компаниях «Россия» и «АйФлай». Более популяр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станут Владивосток и Благовещенск. Из Москвы и обратно самолеты будут летать с такой частотой в неделю:

- Владивосток — до 42 рейсов, из них до 33 рейсов — Аэрофлот;
- Благовещенск — до 5 рейсов авиакомпании «Россия»;
- Анадырь — до 4 полетов «России»;
- Магадан — до 8 рейсов «России»;
- Хабаровск — до 32 рейсов, из них до 21 рейса будет выполнять Аэрофлот;
- 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 — до 27 рейсов, тоже Аэрофлот;
- Улан-Удэ — до 14 рейсов Аэрофлота;
- Якутск — до 9 рейсов Аэрофлотом.

В будущем сезоне заметно вырастет предложение для пассажиров, желающих вылететь из Москвы

в Хабаровск и обратно, — более 51 тысячи кресел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2025 года. Также выросло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на направлениях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Благовещенском, Москвой и Якутском. На остальных маршрутах объемы перевозок соответствуют прошлогодним показателям.

Пассажирам напомнили, что билеты можно будет купить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убсидирования. Также перелет авиакомпаниями «Россия» и «АйФлай» обойдется на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рублей дешевле, чем Аэрофлотом. Помимо прямых рейсов между столицей и городами ДФО пассажиры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рейсами из сибирского хаба: в Мирный, Нерюнгри, Читу, Анадырь, а с середины июня будут летать самолеты между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ом и Владивостоком.

보건부: 커피 많이 마실 경우, 임신 가능성 낮출 수 있어

하루에 커피를 5잔 이상 마실 경우 임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보건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건부는 가임기 남녀 건강검진과 관련한 방법론적 권고안에서, 여성이 하루에 커피를 5잔 이상 마실 경우 임신 가능성이 1.45배 낮아진다고 명시했다. 보건부는 해당 문서를 2026년 2월 승인했다.

Минздрав: частое употребление кофе снижает шансы на беременность

Употребление более пяти чашек кофе ежедневно серьезно снижает шанс на беременность. Об этом пишет РИА «Новости» со ссылкой на документ Минздрава.

Из методических рекомендаций по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мужчин и женщин репродуктивного возраста следует, что если женщина пьет более пяти кружек кофе в день, то шансы на наступление беременности снижаются в 1,45 раза. Министерство утвердило документ в феврале 2026 года.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 | | | | |
|---|---|--|--|--|--|
|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 | | |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 |
|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p> |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p> |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